

어항협회, 인천 바다쓰레기 수거 사업 실시 3월~11월까지, 침적 폐기물 수거 등 3개 부문

한 국어항협회는 최근 인천시와 바다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계약을 맺고 인천 관내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9개월간 실시되는 이 사업은 중층 쓰레기 어업인 수매사업, 침적 쓰레기 수거사업, 장마철 유입 쓰레기 수거사업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중층 쓰레기 어업인 수매 사업은 어업인들이 어업활동 중 어류와 함께 인양한 중층쓰레기를 어업인들이 마대에 담아 오도록하여 수매하는 사업으로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까지 2회에서 걸쳐 초지포구, 소래포구, 여객선터미널에서 2,602㎡, 782톤을 수매할 예정이다.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인천 지역 어업인들의 주 어장인 만도리어장, 장봉도 해역, 장구도 및 지도 해역 900ha에서 880㎡, 440톤을 인양, 처리하는 사업이다.

장마철 유입쓰레기 수거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염화수로 해역 2개소에서 장마철 기간동안 한강 등에서 떠내려오는 부유쓰레기 등을 차단막을 설치하여 수거하는 사업으로 1,942㎡, 583톤을 수거할 계획이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해 연평도 꽃게어장 정화사업, 대청도 중국 통발 처리 사업 등에서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 지역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어촌에서 주말을... 어촌관광 활성화

해 양수산부는 어촌 어항을 도시인들이 즐겨찾는 관광·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2009년까지 총 4,732억원을 투입해 '어촌관광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어촌관광활성화방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인 관광어촌 개발을 목적으로 △어항과 어촌이 어우러진 '어촌관광 복합공간 창출' △어항의 기능을 대폭 보완한 '다기능어항개발' △어촌관광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 등 3가지 모델을 기본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이 방안에 따른 사업대상지 24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3가지 어촌관광 기본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비를 전면 재편해 △어촌·어항 복합공간(7개소) 조성에 1,079억원 △다기능어항(6개소) 건설에 2,957억원 △어촌관광단지(11개소) 조성에 696억원 등 총 4,732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지역계획 수립 단계부터 어촌계 의견을 반영해 어업인이 경영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관광교육 지속 실시

와 도시·어촌 자매결연 및 회원제 도입 등을 통해 어업인 스스로 어촌관광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주 5일 근무제 실시, 각종 교통망 확충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관광수요를 특성화된 어촌관광으로 흡수해 새로운 어가소득을 창출하고, 국민들이 가족단위로 어촌과 바다를 즐기며 휴양할 수 있는 관광어촌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어촌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어초사업 투자경제성 분석

투자누적액 증대됨에 따라

해 양수산부는 지속이용 가능한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자원조성 증강사업의 하나로 지난 1971년부터 지난해까지 33년간 6,353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해 온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해 투자경제성 분석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한 투자누적액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지난 2일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매립·간척사업에 의한 연안어장 축소와 산업화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수산자원과 어업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산란·서식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강제, 세라믹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연안해역에 투하하는 사업으로 시설적지 총 30만 7000ha 중 지난해까지 18만 2000ha에 대해 시설을 설치했다.

그동안 설치된 인공어초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인공어초가 시설된 어장이 비시설 어장보다 시설 3년 후에 약 2.6배의 어획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어초어장의 생산성 평가결과 ha당 500~650kg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문의 02-3673-2854

일본 수산청 방재어촌과 일행 협회 방문



배 평양 한국어항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우리나라 어촌어항 조사를 위해 방문한 일본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방재어촌과 마토노 히로유키 반장 일행을 접견하고 국제교류 협력에 대해 환담했다.

이 일행은 지난 7일 방한, 충남 안흥항, 제주 모슬포항 등지를 시찰하고 우리나라 어항관리 및 어촌관광 현황을 살펴보았다.